

기 념 사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춘암상사께서 의암성사로부터 4세 대도주의 도통을 이어받으신 제108주년 도일기념일입니다.

춘암상사님은 포덕전 5(1855)년 2월 1일 충남 예산군 예산읍 하포리에 막동에서 태어나시어, 포덕 24(1883)년 동학에 입도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엄격한 수행과 독공을 계속하시면서 예산 일대는 물론 내포 전역에 동학이 크게 일어나는 데 지대한 공력을 발휘하셨습니다. 포덕 35(1894)년 보은 취회에 즈음하여 덕의포 대접주에 임명되었으며, 동학농민혁명이 좌절된 이후 어려움에 처한 교단 상황에서 의암성사를 보필하여 도인들의 조직을 재건하는 데 앞장서셨습니다.

천도교의 대고천하 직후, 선천과 후천이 갈아드는 시대 상황 속에서 교단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며 후천 개벽으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하던 포덕 49(1908)년 1월 18일, 춘암상사님은 마침내 의암성사의 엄중한 결단으로 제4세 대도주가 되셨습니다.

다. 그날 이후 30여 정상, 춘암상사님은 온갖 질곡의 시대상황과 시비가 분분하는 교단 내 상황에서도 태산같이 꿋꿋한 중심을 잡고 오직 교단의 정신과 토대를 수호하는 본분을 한 치도 어김이 없이 지켜내셨습니다.

해월신사님은 수운대신사 순도 6개월 전에, 의암성사님 또한 해월신사 순도 6개월 전에 도통을 물려받으신 데 비하여, 춘암상사님은 도통을 받으신 이후로도 15년 동안 의암성사를 모시면서 묵묵히 대도주의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그리하여 3.1운동 당시에도 의암성사의 특명을 받아 민족대표에 포함되지 않고, 한편으로 운동의 전면에 나서는 의암성사 이하 대표들을 지원하고, 한편으로 교단의 장래를 위한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춘암상사님은 수운대신사 이래의 스승님의 도통을 이어받은 일이관지한 유일성을 지니셨으며, 위로 세 분 스승님의 가르침과 역사를 온몸으로 감당하시고, 교단 안팎에서 이중삼중으로 닦쳐오는 험난한 파도를 헤치며 천도교 현도시대를 경영하신 고유성을 지니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제108주년 도일기념일을 맞이하며, 우리는 춘암상사님의 삶과 가르침을 다시금 회고하며, 도성입덕하여 포덕천하하

는 공부와 실천을 다하는 후학이 될 것을 다짐해야겠습니다.

상사님은 동학농민혁명, 갑진개화운동, 3.1혁명, 신문화운동이라는 거대한 역사 흐름을 모두 경험하고 관통하신 것은 물론 무인멸왜기도를 이끄시는 등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용시용활하면서도, 변치 않는 도심의 화신으로 자리매김하셨습니다. 춘암상사 시대 이후 우리 교단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돌아보면, 한편으로 변치 않고 굳건해야 할 마음기둥과 교헌의 위상이 흔들릴 때와, 다른 한편으로 시대의 흐름에 짝하여 용시용활하지 못하고 인습에 얽매일 때였습니다.

춘암상사님이 일평생 어려움에 처하였던 것은 스스로 거짓을 용납하지 않고 오직 참을 지키며 참에 의지하여 살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먼저 상사님의 “거짓말 하지 말라”는 말씀을 다시금 돌이켜보아야겠습니다. 거짓은 단순히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가두고 독선을 앞세우며, 진리를 왜곡하고 독점하려 하는 것입니다. 거짓은 한울님과 멀어지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며, 스승님의 가르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행자지하는 것이며,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일입니다. 그 모든 것은 또한 세상을 속이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교인으로서 거짓말을 한다 함은 교단이 정한 규제

를 여기는 것입니다. 입도할 당시에 맹세한 서천문을 여기게 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는지 참회하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천도교단이 시대와 역사의 맥락 속에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거짓을 스스로 떨쳐 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임을, 공경과 두려움의 마음으로 직시하는 것이 바로 춘암상사님의 성령이 더욱 밝게 출세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춘암상사님은 질곡으로 점철되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시면서 세 분 스승님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지켜 내시는 데 초지일관하셨습니다. 그에 더하여 굶주림조차 마다하지 않으시고 교회의 물질적 재산을 굳건히 지켜 후손들을 통해 오늘의 우리에게 물려 주셨습니다. 삼십삼인에 참여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교회의 재산을 지켜온 그 정신을 지금 우리가 충실히 지켜 가는지 돌아보고 춘암상사의 역사를 이어 다시 개혁의 내일을 위한 재도약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극에 다란 물질문명의 발달로 과학 문명은 물론 정보통신의 혁신으로 발달된 기계문명에 의하여 인간 고유의 지혜와 감성마저도 위협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 중심의 발달을 지향하는 현대문명은 필연적으로 불행과 불화의 그림자를 달고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세상은 늙은이는 늙은이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고통 받고 소외되는 괴로움에 처해 있습니다. 제도와 풍습이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며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물질을 중심으로 돌아가며 죽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로 향하는 외눈박이 삶은 각자위심의 눈이며, 본체인 한울님의 실상을 직시하는 마음의 눈이 맑고 밝아져 동귀일체의 원리를 깨닫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춘암상사님의 참에 살고 거짓에 죽는다는 근본정신이 더욱 간절히 기다려집니다. 이즈음 들어 세상 사람들이 동학을 주목하는 속내는 동학이 지향하는 새 세상이 바로 이 세상과 만물의 근본으로 향하는 길임을 느끼기 때문이며, 현대문명이 끝끝내 감추고자 하는 어두운 그림자, 파멸의 징조를 치유할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춘암상사님의 일생을 통하여 몸으로 체현되었음을 우리가 먼저 명심하고 계승해야 하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춘암상사의 우묵늬(愚默訥)하신 자세를 본받아 도심과 도력을 연마하고, 교리와 교사를 공부하며,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의 실상을 투철히 체험하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국의 동덕 여러분! 올해 우리는 여러 교역자들을 새롭게 선출하게 됩니다. 특히 전국 대의원대회 등에서는 교령을 비롯한 연원회 그리고 중앙총부 각 기관의 주요 교역자를 추대하고 선출합니다. 이러한 마당은 단지 대의원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다시 한 번 전체 교인들의 지혜와 원력을 모으고, 심기일전하는 장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의 천도교의 제도를 중의제라 함도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무엇보다 스승님의 도통이 온전히 함축된 교헌의 정신을 엄수하면서, 거짓과 위선은 애초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삼가며 수행하는 마음가짐으로 교단의 내일, 세상의 개혁을 향한 소중한 마당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제보다 나은 새로운 3년, 그것을 기반으로 팔목 상대하는 중일변의 계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 소식을 돌아보면 자연 재해가 끊이지 않고, 갈등과 분열 전쟁의 참화가 끊이지 않으며, 정치와 외교, 경제와 문화 전반에 재앙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쇠운이 지극한 징조임을 아무도 부인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천도교인들은 이럴 때일수록 그 속에서 돌아오는 성운을 믿고 공경하여 정성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이야말로 춘암상사님께서 환원에 임박하여서도 결코 놓치지 않았던 “때”에 대한 예견과 가르

침의 뚜렷한 자취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는 지난 3년 동안 애써 쌓아온 노력들이 성장하고 개화하며 열매를 맺도록 하는 새로운 시작의 해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천도교 소식을 궁금해 하며, 천도교가 앞장서는 일에 동참하고자 하며, 천도교의 장래를 희망찬 것으로 이야기 하며, 나아가 천도교가 가리키는 새 세상을 기대해 마지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심화기화 하여 밝은 기운을 타고 오를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덕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가능성은 오직 우리의 정성과 공경에 의해서만 현실화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춘암상사님의 가르침과 삶의 자세를 모범으로 삼아야만 뜻한 바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춘암상사님의 승통 제108주년 도일기념을 다시 한 번 축하하면서, 동덕 여러분과 함께 거짚을 버리고 참에 따르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기념사를 마칩니다.

포덕 157(2016)년 1월 18일

교령 박남수